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뉴스에이리저리치이며

Scholium

Scholium
뉴스에이리저리치이며
2021-02-13

2021.05.24, 원문링크 <https://scholium.noblogs.org/post/2021/02/13/getting-pushed-around-by-the-news-2nd-ed/>
원문 "Getting Pushed Around by the News" (영문) 번역본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2-13

정보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점점 더 깊이 침투하면서, 뉴스는 대중의식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인터넷 기계를 항상 휴대하기 때문에 항상 뉴스에 쫓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는 기사, 반응글과 뉴스 관련 '짤'의 폭격을 받는다. 채팅방에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이 감정적 반응을 하게 만든 기사들에 우리도 같은 반응을 갖길 바라며 글을 공유한다. 어디를 가든, 피할 수 없이 우리는 뉴스의 추적을 당한다.

인터넷의 편재성은 뉴스를 일상으로 들여놓는다. 뉴스를 접하기 위해 텔레비전 근처에서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거나 거추장스러운 신문지를 펼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한다. 이는 우리의 현상학적 경험을 극단적으로 바꾼다. 더 이상 우리 일과는 기상, 출근, 사고, 식사, 새 소식 접한 뒤 취침 전 취미로 이뤄진 생활이 아니다. 대신 우리 일과는 홍콩의 폭동 속에서 힘겨운 삶이나, 극우의 무력과 시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교외엄마'들이 하는 우리 현존 문화권에서 용인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독선적인 경악감으로 조금씩 채워진다. 뉴스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침투한다.

활동가와 급진주의자들은 새로운 사건을 추적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을 모든 활동의 시발점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보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뉴스에 올라오면, 당장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부름이 내포돼 있다. 일부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끔찍한 악행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이들은 시작부터 실패할 것이 뻔한 투쟁과 시위를 통해 '세력을 키우자'는 입발린 말을 한다. 각자의 냉소함이나 사상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뉴스 소식의 화려한 그 특성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내기 힘들어진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뉴스로 접하지만 았았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사건에만 집중하게 된다¹.

뉴스에 의존하는 것은 세상을 알파고하고 번덕스러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초기 보고는 절대로 정확한 경우가 없고 같이 보도 내용은 맥락을 쉽게 흐린다. 보도된 사건이 일어난 현장 -예를 들자면 시위-에 있어 본적 있는 사람은 이 점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는 대개 맥락을 모르거

¹ 뉴스가 직접 경험을 다룰 때처럼, 이 개념은 모호해진다. 백인 경찰관에 의한 조지 플로이드의 참혹한 살인은 전 세계 곳곳의 수백만 명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도 경찰 폭력에서 탈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고로, 조지 플로이드의 살인을 뉴스를 통해 목격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경험하는 두려움과 억압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일반적인 현실을 증명하는 예외 상황이다.

신의분야와관련된일자리가없거나높아지는집세를감당할수없는가? 살던곳을버리고다른곳으로이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연인관계에서우리는한사람이다른한사람에게맞춰주는상황이있을때힘의불균형이있다고한다. 이관계의조건은후자가내세우고힘은그에게있다. 뉴스가우리에게내세우는행동조건을받아들인다면우리는뉴스의권위에굴복하는것이다. 뉴스가우리에게맞춰주지않고우리가뉴스에게맞춰주는것이다. 세상의거대한체계들이우리들보다더강력한것은당연하고이에꾸준히반응하는것은이체계에대항하는실용적인방법이라고반박을할수있다. 하지만아나키스트는수단을목적에맞게계획해야한다. 강력한기관에휘둘리지않는삶을원한다면, 우리는이에알맞게행동해야할것이다.

대답하고, 자의적이고확고한주장을갖은사람은비협조적인사람이라는인식을받는다. 하지만우리는이런사람들을존중한다. 남을위해계속해서바뀌는사람은우리는존중하지않는다. 융통성은물인격적이다. 신자유주의와행동주의모두우리를대중의시중으로만든다.

새로움을위해서계속해서자기자신을바꾸는것과는다르게, 지속적으로무언가를하는것은그활동에대해서당신의변화와성장을가능하게한다. 특히다른사람들과협력할때, 어떻게하면그일을더잘할수있는지깨닫게해준다. 뉴스소식에대응해계속해서당신이하고있는일을바꾸는것은이가능성을희생시킨다. 이를통해배우는것이있다면이는절대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아닌오로지변하는현실에반응하는방법뿐이다.

출처

- Bauman, Zygmunt. "Liquid Modernity". 1999
- Horkheimer, Max. "Eclipse of Reason". 1947
- Landstreicher, Wolfi. "On Projectuality" Willful Disobedience, vol. 4, number 1. 2009. <https://writerror.com/texts/on-projectuality>
- Nhat Hanh, Thich. Fear: Essential Wisdom For Getting Through the Storm. 2012
- Scholium "The Hollowing of Anarchy: Exhibition Value". 2019. <https://scholium.noblogs.org/post/2019/01/20/the-hollowing-of-anarchy-exhibition-value/>

나, 자신들의사상에알맞게사건을보도하거나들다이다. 때문에우리가세상소식을모르는것이아닌, 뉴스는우리가무언가를이해하고있다는착각을하게한다.

뜻깊은분석이나생각은뉴스에는존재하지않는다. 기사들은-특히인터넷에서훑어읽히는기사들- 독자의관심을잃지않고새로운개념이나사고방식을묘사할시간이없다. 새로운관점에대한상세한설명을할시간이없다는것은지배적사상의현실에대한묘사법이승리한다는말이다. 우리가그어느때보다도더뉴스에관심이쏠려있다는말이사실이면, 이는자본주의상식이끊임없이우리에게주입되고있다는말이기도하다.

뉴스는어느소식에대한흥분을만든뒤곧바로다른곳으로관심을바꾼다. 이모순덕분에, 모든것은'가장중요한것'이된다 -다음주가돼우리가이사건을잊기전까지는. 트럼피즘⁽¹⁾과 2016 년대선당시제기된러시아와의내통에대한고발이이현상에대한예이다. 우리는이사건에신경을써야하는것이원칙이라하지만, 신경써야하는사건들은매주바뀌고이들때문에달라지는것은없다. 결국뉴스를향한분노는상관없이잔다. 제보된현상이나사건은일상이되면서분노의대상은군중의걱정거리로부터서서히잊혀진다. 일상은뉴스가아니기때문에계속해서분노를표출할만한새로운사건으로관심은넘어간다. 예를들어, 이십년전노동착취공장에대한분노와여러반대운동이있었지만, 이공장의존재사실이상식이되자사람들은걱정하기를그만두고관심을다른곳으로돌렸다.

뉴스사업의의념은매우강력한기관들에의해정해진다. 이글에서설명할필요없는기업매체에대한수많은비판이존재하지만, 간단한증명이면충분하다: 권력을권사로나기관이무언가를대중의식에들이길원한다면, 그들은그저보도거리가부족한기자에게그무언가를줘주기만하면된다. 안될경우짤, 밈또는소셜미디어상의다른허위정보도구를사용하면된다.

뉴스가구경거리로변질되면서사람들은뉴스에보도되기위해서만행동하기시작한다. 행동은현실성을잃고덕분에영향력도없다. 요즘말로표현하자면, 우리는뉴스에나오는사람들이'랄핑'(LARPing)⁽²⁾을하고있는게아닌가의심하게된다. 우리는그들이진짜로무언가를이루고있는지, 아니면온전히다른사람들의시선을받기위해무언가를하고있는척하고있는지생각하게된다. 전시성의군림이다. (Scholium, 2019)

관심을끌기위해, 뉴스는두려움과분노를불러일으키려한다. 뉴스에서본것에두려움을느낀다면, 우리는반드시하던일을잠시멈추고무대위

⁽¹⁾ 트럼피즘 (Trumpism) 은미국의 45 대대통령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의허무맹랑한말과행동들을일컫는다.

⁽²⁾ 랄프 (LARP) 는영어'Live-Action Role Play'의약자로보드게임이나비디오게임같이가상에서하는역할게임이아닌, 현실에서상상속속놀이를하는것을말한다. 엄청난상력을발휘해야한다는점에서랄프는어린이들의놀이와유사하다.

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지적이지만, 아나키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지 않다. 두려움은 무력함을 불러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보호자를 원하게 하는 반아나키적 태도를 갖게 한다. 선불교 승려 틱낫한은 두려움은 어릴 적 부모를 향한 의존성으로부터 난다고 고수한다. 한없이 무력한 탓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들에 의존했고 때문에 그들이 없을 때 두려움에 떨게 됐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부모 곁으로 돌아가 보호를 받으라는 신호이다. 결론적으로, 두려움은 권위를 좋게 보게 만든다.

일부는 최신 뉴스를 듣는 것을 넓은 세상의 현황에 대해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들은 뉴스에 주의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뉴스가 정말로 새로운 사건을 보도한다면, 일상의 사실은 누가 보고하는 건가? 우리 주변의 사회와 세상에 그 어떠한 화려한 사건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는 원래 비정상적인 사건을, 일상을 벗어나 전개되는 것들을 보도해야 한다. 뉴스의 편향을 무시하고, 보도 내용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현실이라는 말을 믿는 다해도, 어쩌서 새로운 소식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하는가?

때를 불문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 착취 공장에서도 노역을 하고 비인간 동물들은 공장식 축산 농장에 갇혀 있다. 수억 또는 그 이상 이기아와 식량 부족에 시달린다.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 모두가 무력함과 불안함에 떨고 자신의 의식주를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서야 이해하기 시작한다.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 삶으로부터 소외됐다.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민봉기 당시, 누군가 벽에 '비혁명주 말 하나는 일 개월 간 끊임 없는 혁명보다 무한히 더 잔인하다'라 적었다. 어쩌면 일상 속 시시함과 끔찍함은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글은 반드시 지속적인 사회 운동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요점은 뉴스와 새 소식은 고통의 독점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뉴스와 새 소식과의 지나친 접촉이 일으키는 '경험 포화'는 의식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평상시의 자질구레함은 군중의 관심을 끈적이지 않지만, 뉴스 전달의 용이성은 '사건'을 일상보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 새로운 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경시한다. 이 모든 것은 후자가 우리 일생의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은 끊임 없는 섭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드러낸다. 뉴스가 보도하는 새로운 사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선견지명이 부족하다 (Landstreicher, 2009). 이들은 자기 지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움으로부터 방향성을 찾는다. 우리들 중 원하는 세상에 대한 뜻이 확고하고 현 세상에 대항하며 사는 방법을 아는 이들은 과업과 가능성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쥐고 있다. 그들은 일상을 어떻게 계획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사회에 맞서 비대칭전을 펼치고 인관관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탐구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기른다. 이러한 작업들은 뉴스에 대한 조증스러운 의식을 요하지 않는다.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색과, 대화와 영감을 통해 우리도 언젠가는 과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소식에 대한 집착은 어떠한 보수주의를 드러낸다. 마치 일부 사람들은 현재 세상의 상태에 대한 불만이 없는 듯하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일상의 변화이고 위기이다. 어쩌면 자본주의 아래 일상을, 그 하층은 여가 활동과 불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전체적인 소극성을 이들은 그닥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흔히 급진주의자들은 사회적 위기를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용한다. 우리가 지지하는 입장 중 하나는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대중 또한 지지할 경우, 이에 대한 투쟁을 대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우선 사항이 되지 않는 한에서 해로울 것이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 진입주의자, 급진주의자, 모든 쓸모없는 시위에 참여를 지지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 안가 반복된 실패 덕분에 지치기만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시위를 통해, 무장 시위라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고 우리 같은 헌신적인 소수만으로 성공적으로 항쟁의 규모를 키울 수 없다. 투쟁이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를 돕기 위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어나는 모든 시위에 '힘을 기르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잘 해 봐야 시간 낭비이다.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향한 비판을 들은 일부는 실용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다: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무산될 것이다." 막스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 는 이 '도구적 이성'을 지적했다. 미로를 가로지르는 쥐는 이 도구적 이성을 사용한다. 이성을 사용해 직시하는 현실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현대의 이성을 지배하는 유형으로서 오로지 수단을 고려하고 절대로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 묵언의 암시된 그 의 목적은 자본주의에의 해이 미정해져 있다: 돈을 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등. 하지만 다른 유형의 이성도 존재한다. 자신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인생과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유형의 이성은 완강하고 도전적이다, 세상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호르크하이머, 1947).

반면에, 뉴스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맞추는 것은 모든 것이 일시적인 '유동적 근대성'의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습관이다. 빛과 예산 감소와 불안정한 직장 이 유발하는 경제적 불안정함은 우리가 경제를 위해 계속해서 변하게 한다. 당신의 직장 이 자동화, 감축 또는 외주되고 있는가? 재교육 받고 분야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의 고장에 당